

# “클래식만 연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클래스’가 있어요”

광주일보 창사 66주년 기념 ‘필하모닉스’ 공연...12월 17일 문예회관

베를린·빈 필 단원 등 7인 앙상블...세련된 편곡·완벽한 연주 각광...팝송·탱고 등 무대

“클래식만 연주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클래스’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클래식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실내악 앙상블 ‘필하모닉스’가 내건 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이들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으로 구성된 이유만은 아니다. 이들은 클래식은 재미가 없다는 편견을 깨고 세련된 편곡과 완벽한 연주로 장르를 뛰어넘는 무대를 선사하며 전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연말을 뜨겁게 달굴 ‘필하모닉스’의 내한 공연이 오는 12월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필하모닉스’는 베를린 필 악장을 맡고 있는 노아 벤딕스-발글레이를 비롯해 세바스티안 거틀러(바이올린), 티로 페히너(비올라·빈 필), 스테판 콘츠(첼로·베를린 필), 오펜 라츠(더블베이스·빈 필 수석단원), 다니엘 오펜잠머(클라리넷·빈 필 수석), 크리스토프 트라슬러(피아노)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하모닉스’처럼 현악4중주에 클라리넷, 더블베이스 그리고 피아노가 더해진

구성엔 보기 힘든 편이다. 이들은 꾸준히 앨범을 내고 연주회를 통해 청중을 만나고 있다. 지난 2011-2012 시즌부터 빈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정기연주회를 펼치고 있으며 2012년 빈 필 신년음악회 인터미션에는 그들이 제작한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신보 ‘비엔나 베를린 뮤직 클럽’을 발매해 국내 팬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최정상 클래식 음반사인 ‘도이치 그라모폰’과 함께 작업하면서 클래식 애호가 사이에서 이들 음반은 깊은 신뢰를 받았다.

최근 노아 벤딕스가 수석 바이올린으로 합류하면서 이름을 ‘더 필하모닉스’에서 ‘필하모닉스’로 바꾼 이들은 ‘클립’이 붙은 앨범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젊고 참신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앨범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코끼리’, 에릭 사티의 ‘그노시엔느’, 니콜라이 칼로바노프 ‘러시안 서곡’ 등 클래식 외에도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캐롤 ‘펠리스 나비’, 록그룹 퀸의 ‘보헤미안 랍소디’ 등 음악의 범위를 넓혀 자신들의 색깔을 입혀

연주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최근 선보인 음반 ‘비엔나 베를린 뮤직클럽’에 담긴 음악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정통 클래식과 팝송, 탱고 등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사랑받을 음악들로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으로 문을 열고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의 의한 랍소디’, 요한스트라우스 ‘박쥐’ 서곡, 험퍼딩크 ‘현젤과 그레텔’ 서곡 등이 이어진다.

클래식 외의 장르 선곡도 풍성하다. 천재적 탱고 음악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미친 밀푼가’, 영화 음악의 대가 헨리 맨시니의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국 가수 중 한명인 스티브 ‘잉글리쉬맨 인 뉴욕’ 등을 만나고 스테판 콘츠의 첼로 독주도 들을 수 있다.

‘필하모닉스’는 이날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을 거쳐 19일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순회를 마무리한다.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A석 3만3000원. 문의 062-220-054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계적 명성의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 등이 모인 ‘필하모닉스’가 오는 12월17일 광주 공연을 갖는다. 이들은 클래식의 정통성을 살리면서 탱고, 팝음악 등 장르의 한계를 넘어선 앙상블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WCN 제공>

## 장지환 그림 인생 60년의 ‘시간여행’

25일까지 광주 북구 자미갤러리...50년 전 작품 ‘벽’ 등 30여점 선배

화가 장지환은 1968년 여수의 한 다방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열었다. 추상 장르가 익숙하지 않은 시절, 그는 ‘벽’을 모티브로 면과 선이 자유분방하게 어우러진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다. 15일 찾은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이 바로 50년전 그 때 선보였던 ‘벽’ 연작 중 한점이다.

장지환 화백 초대전이 오는 25일까지 광주 서구 자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사람들이 회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웃음). 몇년 전부터 초대전 제안을 받고 고사하다 옛날 작품부터 지금까지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60여년간 작업해온 ‘과정’을 보여주면 어떻까 싶었고, 전시 제목도 ‘시간여행’으로 정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작가의 변화무쌍하게 변해가는 작품 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 흥미롭다. 이번 전시회에서 만나는 30여점은 60여년간 붓질을 멈추지

않은 그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

강용운, 양수아 선생 등의 가르침을 받고 그룹 ‘에보끄’에서 활동했던 장 화백은 초창기 순수추상에 몰두했다. 이후 형상미를 가미한 추상작품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구성도 자유로워지고 관람객들과 접점도 찾아 감각을 얻었다. 초창기 추상에서는 단순함과 함께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며 ‘산’ 등 다채로운 풍경이 세월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 지 보여주는 점도 흥미롭다.

“자연의 형상을 ‘느끼는’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해 나가는 건 즐거운 작업입니다. 어떤 때는 강렬한 모습으로 마음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들을 표현하고, 또 어떤 때는 담담하게 그려나가요.”

특히 장 화백의 60대 시절 작품은 속도감이 있고 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어 인상적이다. 화려한 색감과 대범한 붓 필치가 화면을 압도한다. 지금은 ‘그 때 그 마음처

럼’ 그릴 수 없어 더 애착이 간다고 했다.

‘공감탐색·숲’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검은 숲 나뭇잎 사이로 구멍처럼 보이는 푸른 하늘과 색색의 점들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비를 피하러 숲에 들어갔다 잠시 비가 갠 사이 누워 바라본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을 표현했다. 4-5년부터는 ‘마음의 무늬’, ‘사유의 흔적’ 등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다채롭게 면을 분할하고 세밀한 붓치로 마음의 형상들을 화폭에 드러내는 작업이다.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내면 세계를 잘 표현하는 것, 앞으로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숙제다.

“시각각 변하는 마음의 무늬를 그리고 싶습니다. 시력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섬세한 작품을 할 수 없을 테지요. 좀 더 단순한 화면으로 변화겠지만 그 속



‘마음의 무늬’



1995년 작 ‘작품 9510-A’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장지환 화백.

에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힘있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고 조용히 깊이 있게 사색해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흔 여덟의 노화백은 지금도 매일 오전 8시면 작업실에 나가 오후 3~4시까지 캔버

스 앞에 앉아 한 작품의 이미지가 끝날 때까지 파고 들며 오랜 시간을 공들여 작품을 완성한다.

장 화백은 작품이 막히거나 힘들 때면 동선중에서 교편을 잡으며 인연을 맺었던 ‘오렌지’ 한승원 작가를 찾아가곤 한다. “나는 저 친구처럼 열심히 살아간 적이

있나” 생각하며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다. 팽플릿 서문에 한 작가가 “내 친구 장지환 화백은 살아있는 한 그림을 그릴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한 살아 있을 것”이라 쓴 것처럼 장 화백은 언제까지나 붓을 놓지 않을 것이다. 문의 062-410-66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 시공전 2. 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시공후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